



마크 로스코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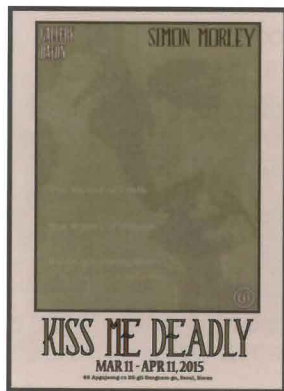
15. 3. 23 - 15. 6. 28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추상주의라는 틀에 한정되기를 거부했던 추상표현주의의 거장 마크 로스코(1903-1970)의 전시가 열린다. 스티브 잡스가 생전 영감을 얻고자 했던 로스코의 작품은 절제된 구도 속에서 사색적이고 종교적이며 고요한 명상의 이미지를 안겨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미국 워싱턴내셔널갤러리가 소장 작품을 회고전 형식으로 선보이며, 로스코 작품 세계의 궤적을 밝아가며 신화의 시대, 색감의 시대, 황금기, 벽화의 시대, 부활의 시대 등으로 구성된다.

Simon Morley 'Kiss Me Deadly'

15. 3. 11 - 15. 4. 11 갤러리바튼

사이언스 물리는 이번 전시에서 영화의 특정 장면과 문학적 텍스트를 단색 회화에 접목시킨 신작들을 선보인다. 전시 타이틀인 '키스 미 데들리 (Kiss Me Deadly)'는 영화감독 로버트 알드리치(Robert Aldrich)의 1995년 할리우드 고전 노와르 영화이다. 이번 전시는 사이언스 물리의 5년간의 한국 체류에서 얻은 경험과 작가로서 받아온 지적, 감성적 자극에 대한 시각적 결실이 자충만한 표현이 될 것이다.



트라우마의 기록

15. 3. 6 - 15. 5. 17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한국을 비롯하여 현대사회에는 각종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트라우마의 기록>展에서는 시대 성찰을 통하여 위험 요소가 산재한 지금 우리사회를 돌아볼 예정이다. 또한 기존의 사건들을 그저 보여주는 것에서 벗어나, 이를 극복하고 예술이 하나의 치유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예술을 통한 트라우마와의 마주 보기를 통해 긍정하는 삶의 시간을 가져보고자 기획되었다.

장면의 탄생 : 의문의 태도를 지닌 사진들

15. 2. 25 - 15. 3. 24 갤러리 룩스

<장면의 탄생>은 익숙한 상황을 자신의 언어로 풀어내는 형식의 작업들을 통해 또 다른 '장면'을 탄생시키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번 '의문의 태도를 지닌 사진들'은 숙련도가 미숙한 대학생의 습작에서부터 아마추어로 시작해 작가 반열에 들어선 작가, 예비 작가 및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작가 10명의 작업을 살펴볼 수 있으며, '사진' 매체를 새롭게 해석하고자 하는 이들의 개성을 두루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Artist's Portfolio II : 예술가의 발상과 창작의 기록

15. 3. 18 - 15. 6. 5 사비나미술관



고명근, 김기철, 김영나, 유근택, 한성필, 홍순명, 홍승혜가 참여하는 본 전시는 '포트폴리오'가 가진 관념적인 자료로서의 개념에서 벗어나 작가만의 철학과 개념, 개성 있는 기법, 제작과정 등을 전시장에 독특한 창작방식으로 구현함으로써 작가를 보다 심층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또한 레지던시 참여 작가 및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 및 성악가, 무용가 등 60여 명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여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와 협력한다.

한반도 오감도

15. 3. 12 - 15. 5. 10 아르코미술관

한국 베니스 비엔날레 참가 역사상 최초로 최고 영예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한반도 오감도>展은 시인이자 건축가인 이상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서울과 평양의 도시와 건축'을 주제로 분단 이후 70년간 각기 다른 길을 걸어온 남북한 건축의 양상을 사진, 영상, 리서치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보여준다. 국내외 건축가, 시인과 문인, 화가, 사진작가와 영화감독, 큐레이터 등 총 33팀이 참여했으며, <삶의 재건>, <모뉴먼트>, <경계>, <유토피안 투어> 총 네 개의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한승훈 + 홍지철)² 전

15. 3. 2 - 15. 3. 21 갤러리 분도 3층

섬세한 붓놀림을 바탕으로 팝아트의 영역을 개척중인 한승훈은 일명 브라이스(BLYTHE)라 불리는 여자아이 인형을 전면에 내세워 작품에 작가의 상상력과 필체를 더한다. 커피가루를 물감과 섞어 그리는 홍지철은 커피라는 다국적 기호품을 작품의 소재와 주제로 함께 생선국, 판매국, 소비국 사이의 불평등 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이번 2인전은 흥미로운 발상을 회화에 옮긴 현대 회화를 즐기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Food-Scape展

15. 2. 24 - 15. 3. 31 아트스페이스J

본 전시는 인간의 삶을 기본적으로 영위하는 식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준비한 3회의 시리즈로 '의식주(衣食住)...예술로 말한다'의 두 번째 전시이다. 우리네 먹거리를 가지고 사진 작업을 하고 있는 4인의 작가, 김광수, 권정준, 임안나, 구성연의 작품들을 통해 '일상의 식재료'가 현대미술의 풍경 속에서 얼마나 다채롭게 '예술의 주재료'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두렵지만 황홀한

15. 2. 27 - 15. 6. 5 하이트컬렉션

선배 작가6명의 추천으로 회화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후배 작가 13명의 작업을 통해 한국 현대 회화의 현주소를 살펴보는 전시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젊은 세대로서의 고민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각자 일 상에서 발견한 이야기와 이미지들을 회화라는 매체를 통해 담아낸다. 전시를 보는 관객은 이들의 작업이 일상의 이야기와 이미지들을 다룬다는 점에서 서로 닮았지만 각자의 내밀한 관심사에 의해 다시 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